

# 全州高等學校圖書館

崔 渡 詰

(全州高等學校校長)



## 1. 前 言

山紫水明하고 古色이  
질은 아담스러운 고장인  
全北의 首都, 全州는 後  
百濟의 옛서울이요, 또  
한 湖南의 歷史를 주름잡  
아온 政治, 文化, 經濟의  
中心地로서 우리나라에  
서 둘도 없는 唯一의 古

典의 都市라 하겠다. 이와같은 歷史的인 都市 一角에 老  
松臺라는 터전이 있고 이 곳에 雄姿를 우뚝하게 들어  
내고 있는 “캠퍼스”가 바로 半世紀의 긴 歷史와 傳統  
을 자랑하는 湖南의 자랑인 全州高等學校인 것이다.

本校는 日帝에 抗拒하여 民族自主獨立을 쟁취하던 19  
19年 3월에 設立되어 42회에 걸친 萬餘의 卒業生을 養  
成하여 냈고 現在는 中高 48學級에 三千三百의 在學生  
을 抱容하고 있는 이 고장 唯一의 大教育殿堂인 것이다.

“歷史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格言과  
같이 本校의 오늘이 있음은 오직 지난 날 本校를 이끌어  
오신 여러 教育先輩님들의 裏面에 숨은 피땀의 가  
지가지의 勞苦의 結晶이라 하겠으며 于先 敬虔한 마음  
으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오늘날 우리 國家와 民族에 要請되는 役軍을 養成하  
기 爲하여 무엇보다도 더욱 緊急한 問題가 國民體力向  
上和 健全한 國民思想 善導에 있음은 贅言을 要하지  
않는 바이며 따라서 本校에서도 이에 立脚하여 現代的  
體育館의 設立과 現代的 圖書館 設立이 急先務임을 切  
實히 깨달아 萬難을 排除하고 于先 1962年度에 우리나  
라 學校體育館으로서는 他的 追從을 不許하는 超現代的  
施設을 갖춘 體育館을 落成하였고 1964년에는 또한  
全國에서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는 超現代的인 學校  
圖書館의 落成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國家財政이 圓滑하지 못하고 國民生活이 裕足하지  
못한 가운데 如斯한 巨大한 二大事業을 學校라는 制限  
된 테두리 안에서 이룩하기란 여간 힘드는 일이 아

니었으나 期成會 同窓會는 勿論 本校를 아껴주시는 이  
고장 社會 諸人士의 物心兩面에 걸친 구김살 없는 協  
助下에 그 完成을 보게 되었음은 學校는 勿論 本人에게  
있어서도 畢生 잇을 수 없는 歷史的인 일이었다고 自  
負하며 “못을 파면 고기가 든다”라는 格言이 永久不變  
의 眞理임을 다시 한번 吟味하여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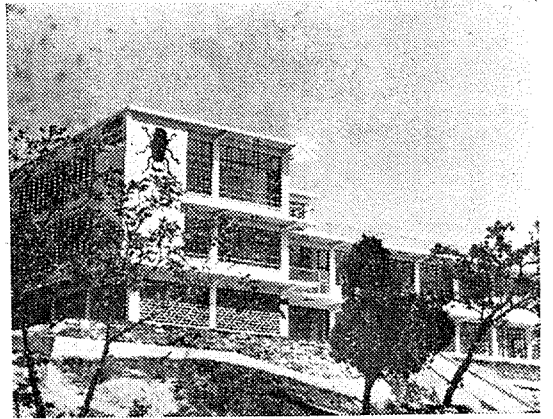
## 2. 本校 圖書館 新築의 經路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全州는 由緒깊은 古都이며  
情緒的이고 아름다운 環境과 傳統으로 다듬어진 文化  
都市로서 外的으로는 제법 條件이 갖추어진 教育都市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教育에 對한 內的條件 곧 이에  
對한 熱意와 施設만 갖춘다면 其實 共히 教育文化都市  
로서 크게 伸長할 수 있는 좋은 位置에 處해 있는 곳  
이라 하겠다. 本校는 이러한 環境속에 자리잡고 있는  
湖南에 있어서 으뜸가는 一流校로서 모든 施設이 대충  
갖추어져 이를 十分 活用하고 있으나 아직도 圖書館은  
그 規模가 學生들의 慾求를 充足시킬 수 없는 小規模  
로서 이의 新築擴充問題가 恒常 論議되어 왔던 것이  
다. 그러한 가운데 體育館과 圖書館의 新築問題가 決  
定되어 무엇이 先行되어야 할 것인가에 對하여 相當히  
論議되었으나 當時의 實情으로서는 體育館이 急하였거  
에 (小規模나마 圖書館이 갖추어 있기 때문) 이를 着  
工하여 1962년에 全國 唯一의 學校體育館이 落成되었  
고 그 뒤를 이어 바로 現代的이고 새로운 圖書館 新築  
의 念願을 成就하고자 萬般의 準備를 갖추기 비롯하  
였다.

3,300의 방대한 數의 學生을 抱容하고 있는 大規模  
의 學校로서 100坪 남짓한 舊圖書館으로서는 學生들  
의 學究熱을 10分 充足시킬 수 없는 形便이고 또한 上  
級學校 進學率이 거의 100프로를 占하고 있는 本校로  
서의 絶對的인 使命感에 따라 學父兄 및 同窓會員들과  
더불어 學校責任者로서의 나의 念願이기도 한 것이 이  
圖書館 新築問題였던 것이다. 그래서 흥분하고 보다가  
은 새로운 圖書館을 세우기 위하여 嚴冬雪寒의 모진  
추위를 무릅쓰고 期成會長인 崔在冕氏와 同窓會長인

金英培先生님께서서는 老境에 몸이 不便하심도 참으시고 함께 全國 各處에 흩어져 있는 一流 圖書館이라 指稱하는 곳을 하나하나 實際로 踏査하여 그의 長點을 取擇하여 보다 理想的인 設計를 마치고 時急히 이 課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始作이 반이라”는 格言을 따라 文字 그대로 赤手空拳 無一分의 處地에도 不拘하고 信念만을 밀친삼아 25萬 全州市民의 등불이 될 本校 圖書館을 학교 뒷편 우뚝 솟은 老松臺위에 터를 잡아 工事を 始作하여 1964年 6月 16日 本校 第45週年開校記念日에 그 落成式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그간 이 新築에 따른 隘路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實情이 있으나 本校를 恒常 愛護하고 아낌없는 協助를 언제나 기우려주시는 이고장 여러 有志님과 學父兄諸位 및 同窓會員 여러분의 厚禮로 일이 順調롭게 進捗되어 그 完工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特히 第一銀行全州支店과 本店의 金常務님의 熱意로 200萬원의 起價와 農協中央會長님의 母校愛의 發露로 180萬원의 起價한 바를 爲始하여 文教部의 支援을 얻기까지의 崔永斗國會文公委員長님, 柳靑議員등 本道出身의 여러 議員님의 協助와 本道教育委員會當局, 또한 三養社 金季洙社長님, 三鶴釀造場의 金相斗社長님들의 勞苦와 厚意에 힘입은 바 多大하였고 同窓會 期成會 學父兄님들의 귀와 땀의 結晶으로서 오늘날 全國 唯一의 學校圖書館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感謝를 올려야 할 것은 土建會社側의 獻身의인 工事進行과 施工中에 監督을 맡아 주신 분이 不徹晝夜 工事場에서 寢食을 함께 하며 汗장의 벽돌 한토막의 나무에 이르기까지 嚴選과 精選을 하여 使用하였으며 때로는 열었다 쌓았다 하여 着工한 날 부터 完工하기까지 細密히 檢討하고 監督하여 왔음은 圖書館이라는 特殊建物이었기에 干涉 아닌 誠意를 다하여 彼此에 베풀고 받아 주었으리라 믿는 바이다. 1964年 6月 16日! 新築圖書館落成의 歷史의인 날! 이날이 있기까지는 上記와 같은 隘路와 눈물겹도록 고마운 各界各層의 끊임없는 協助가 있었던 것이다. 落成式을 마치고 安堵의 숨을 내린 것도 瞬間 어떻게 하여야 內部施設을 完全히 갖추게 될까하는 暗澹한 그림자가 다시 뒤를 따르게 되어 또 한번 險峻한 고갯길에 逢着하게 되었다. 最少限 建築費의 50%에 가까운 巨額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問題로 나는 밤에도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는 處地에 놓여 있게 되었다. 여러모로 苦心하고 研究한 것이 또다시 全國各處에 內部施設 完備를 위한 八字에 없는 求乞行脚의 길에 오르는 것이었다. 그 結果 上記한 여러분의 物心兩面의 聲援과 또한 國內 各出版社, 亞細亞財團, 美國公報院, 全北知事 李汀雨氏, 全北教委金教育監, 全北旅客의 李同宰社長, 全北大學校 劉永大總長님들의



厚意에 힘입어 無難히 훌륭한 施設과 藏書를 具備하게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今年度 本校 第一學年 新入生 全員(中高共)의 一人一冊 寄贈은 本校 圖書館의 內部를 充實하게 하여 주었고 나아가서는 全州市內 各級學校 圖書館藏書增加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였다.

지난 4月 26, 27 兩日間에 걸친 全國 學校圖書館大會를 本校 新築 圖書館에서 開催하도록 마련하여준도 또한 本校의 如斯한 經路를 뒷받침하여주기 위한 韓國 圖書館協會 및 文教當局의 厚誼라 생각할 때 本校 圖書館의 使命感이 더욱 切實히 느껴지는 바이다.

### 3. 圖書館 運營計劃 要綱

새 教育思潮에 入刻한 時急하고 根本的인 課題는 現代의인 教育方法에 달려 있음을 照鑑할 때 既 設置된 圖書館의 12分 活用과 重大性이 前提됨에 學校 敎務分掌을 改正하여 圖書館部를 獨立 名實相符한 圖書館 運營의 터전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은 運營要綱에 入刻 運營의 萬全을 期하고 있다.

1. 學生으로 하여금 學校 敎科生活를 除外한 時間을 圖書館에서 生活하여 知的 및 情緒的인 面에서 不可分의 場所임을 認識케 하여 最大限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한다.
2. 完全開架式 制度를 擇하여 圖書 및 其他 資料 利用에 最大限의 奉仕에 寄與한다.
3. 自習時間의 活用으로 圖書館 敎育과 利用指導로 充分한 資料의 利用과 効果的인 學習向上에 이바지한다.
4. 參考業務의 積極 奉仕로 自己 問題는 自身이 解決할 수 있는 能力을 기르며 迅速 正確한 情報를 提供한다.
5. 視聽覽室의 活用으로 情緒敎育과 時事 및 弘報敎育에 힘쓰는 勿論 中高校 進學班에 對한 年中 無休 開放으로 上級學校 進學 100%의 合格을 期한다.
6. 敎職員의 敎科 參考 準備와 專門의 參考資料 提

供에 積極 奉仕한다.

7. 圖書館 利用에 手前하여 社會 公共施設의 善用을 指導한다.

8. 夏期 對外 文庫를 設置하여 地域社會 開發과 學生들의 餘暇를 善用토록 한다.

以上の 運營要綱에 入刻하여 專任 司書教師의 採用과 事務員 二人 打字手 等의 人的 要件을 具備 年次の 人 施設의 完備와 現在 7,000 餘藏書의 完全 整理는 勿論 學生 一人當 五冊의 藏書確保도 三箇年 計劃으로 完成하여 外國의 施設基準에 遜色없는 圖書館을 만들어 보겠다는 나의 念願도 이룩될 날이 멀지는 않다.

#### 4. 施設의 概要

1. 建坪 316坪 鐵筋콘크리트 三層
2. 閱覽席 418席
3. 藏書 約 7,000卷
4. 施設

##### 一層

- A. 中學校 閱覽室 70坪
  - 가. 書架 6個(單式)
  - 나. 閱覽테이블 23個(6人用 138席)
  - 다. 카운터 2個(大型)
  - 라. 라운드테이블 1個
  - 마. 카운터의자 및 其他 4個
- B. 定期刊行物室 40坪
  - 가. 閱覽테이블 6個(36席)
  - 나. 雜誌架 2個
  - 다. 四角테이블 1個
  - 라. 의자 2個
- C. 宿直室 10坪
  - 가. 테이블 2個
  - 나. 침대 1個
  - 다. 서장 1個
  - 라. 안락의자 5個
- D. 圖書委員室 10坪
  - 가. 테이블 1個
  - 나. 의자 8個
- E. 玄 關

- 가. 카드박스 15UD 1個
- 나. " 30UD 1個
- 다. 揭示板 3個

##### 二層

- A. 高等學校閱覽室 70坪
  - 가. 書架 6個(單式)
  - 나. 閱覽테이블 24個(6人用 144席)
  - 다. 카운터 2個(大型)
  - 라. 라운드테이블 1個
  - 마. 카운터의자 및 기타 4個
- B. 敎職員 研究室 10坪
  - 가. 研究用테이블 8個(1人用)
  - 나. 소파 1個
  - 다. 雜誌架 1個
  - 라. 라운드테이블 1個
  - 마. 회전 사진대 2個
  - 바. 書架 1個(單式)
- C. 司書室 兼 參考室 10坪
  - 가. 사서테이블 1個
  - 나. 사무용테이블 3個
  - 다. 四角테이블 1個
  - 라. 書藏 1個
  - 마. 英文打字機 1臺
  - 바. 國文打字機 1臺
  - 사. 파일카비닛 1個
  - 아. 사무용카비닛 1個
  - 차. 카드박스 15UD 1個
  - 차. 북 추력 1臺
- D. 書庫 50坪
  - 가. 서가 13個(複式)
  - 나. 서가 3個(單式)

##### 三層

- A. 視聽覺室 60坪
  - 가. 강의용책상 100個
  - 나. 강연대 1個
  - 다. 건축 1臺
  - 라. 영사기 1臺
  - 마. 흑판 1個